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8월 10일 (제75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에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통 큰 자들이 되라

“애들아! 수련회 하느라 수고했어. 나는 너희들이 통 큰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사울같이 통이 작은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통 큰 자가 되었으면 한다. 사울에게 있어 다윗은 은인이지만, 다윗에게는 다윗이 죽이려고 했지. 다윗을 품을 만큼 통이 크지 못했던 거야. 그러나 다윗은 세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살려줬단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생각할 부분이 있단다.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온 것만도 고마워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했지. 자고로 부모는 자식에게 통이 크지. 그런데 형은 그런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고, 못마땅해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단다. 속이 좁은 게지. 주님은 우리에게 통 큰 자가 되라고 하셨단다.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는 통 큰 자, 일흔 번에 일곱 번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하셨지.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제자 삼으셨으며, 죄인인 우리를 다 품으신 거란다. 바울도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후6:13)고 했다. 소인배는 대업을 이룰 수 없거든. 애들아! 참 목회자는 선한 목사 자세를 가진 자란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 곧 서로 사랑하는 자세지.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단다. 먼저 높여 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낮아지며 섬겨야 하거든. 그것은 통 큰 자만이 할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너희가 섬김을 받고 높아지게 된단다. 정말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것은 이번 수련회에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보낸 나의 메시지다. 여러분도 통 큰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내 백성이 영적 지식이 없어 망한다

“가자! 피서를 주님과 함께”
2014년 하계산상집회 캐치프레이즈다. 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나는 휴가철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주님의 품에서 산이나 바다가 줄 수 없는 쉼을 얻는다. 하계산상집회 첫 주간을 맞은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첫날 총회장 목사님은 하루 6시간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기도원 온 김에 기도나 칠 것 합시다. 예배 전 2시간씩 기도하면 하루 6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하루 6시간 기도하면 응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천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아브라함 내외에게 아들을 계시한 것이 바로 천사이고(창18),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예언한 것도 천사이며(눅1:19),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을 예언한 것도 천사입니다(마1:20).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 광풍이 일어 홍해를 가르기도, 만나를 뿌린 것도 천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성을 무너뜨린 것도 천사였습니다(수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된 바 되었으니 이제 네가 사람을 옭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인도함으로 베드로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행10).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야 천사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성령에 충만하여, ‘천사는 아이들을 지키는 지어다!’, ‘천사는 우리 집을 지키는 지어다!’, ‘천사는 이 나라를 지키는 지어다!’, ‘천사는 내 사업장을 지키는 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천사가 재앙



2014 여름산상집회(8월 4일 ~ 21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답받지 못할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기도원을 찾았으니 우리 다 응답받고 갑시다.” 이어 총회장 목사님은 “내 백성이 영적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천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히1:14). 천사는 승배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를 돕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처럼, 불처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히1:7).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사건이 무려 170회에 걸쳐

들을 지키셨고(단3), 그들의 친구인 다니엘이 왕명을 어기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법을 어긴 죄로 결국 사자 굴에 던져져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해치 못하는 역사도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단6). 신약에서도 천사들의 이야기는 수 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최초로 알려준 것도 역시 천사였습니다. 또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천사가 나타나 ‘너

를 막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것이고,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영장 벽면에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 부족이다’라고 써 붙인 것입니다. 종도 장성한 자라야 부릴 수 있습니다. 이제 유아적인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을 소유합시다.” 기도원은 약 4개월에 걸친 개보수로 인해 더욱 편리하고 아름다워졌다. 또한 곳곳에 새겨진 주옥같은 말씀들이 많은 깨달음을 준다. 기도원 집회는 2주 더 남았다. 꼭 시간을 내어 모든 자들이 참석하여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하루 6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아들의 입과 귀가 열리자 눈물로 기뻐하는 어머니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난갑순뱀에 없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6:10)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지극히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이 당신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습관 하나가 당신을 건강하게도, 병들게도 할 수 있고, 습관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실패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뭐니까? 습관은 익힐 습(習)과 버릇 관(慣) 자로, 몸에 익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반복되어 몸에 익은 것이 습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요.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큰일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아웃백(outback)이라는 외식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소녀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그릇을 닦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릇 하나하나를 닦은 뒤 물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세척만 하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그 지점을 찾은 회장은 그녀가 작은 일에 충성된 습관을 가졌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정식직원으로 스카우트했고, 전 지점을 돌며 강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녀 강연의 주된 요지는 ‘자기 어머니가 일을 두 번 하지 않게 하라고 가르쳤기에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큰일이든 작은 일이

못하는 자가 어찌 사회와 국가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을 아끼는 습관이 부를 일굽니다. 어느 회장이 자기 회사 공장을 순시하다가 나사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동행하던 직원이 “회장님, 그거 하나에 20원 밖에 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회장은 “20원이라고? 분명히 어느 물품에 이 나사 하나가 안 들어가 불량이 되었을 거요. 딱정벌레 하나가 거목을 쓰러뜨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켈린저호가 나사 하나로 인해 공중폭발의 대참사를 낳은 것 아닙니까? 주님도



총회장 이초석 목사

오병이 어의이적을 행하셔서 많은 무리에게 먹이신 후에 남은 열두 마리와 부스러기를 거두시지 않았습니까?(마14:20).

작은 습관이라고 우습게보면 안 됩니다.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되듯, 작지만 나쁜 습관은 어느 순간 바다 같이 커져 나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여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걸랑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은 인생의 암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당신을 삼키고 말 것입니다. 아침에 5분 늦잠 자는 버릇,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되면 결국 당신은 게으른 자가 될 것이며, 잠언에 무수히 기록된 게으른 자의 결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린 것들이 짝꿍 연필 하나 훔치고, 그것이 몇 번으로 이어져 습관이 되면 결국 큰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꼴 납니다. 언젠가 재벌 사모님이 보석을 훔치다 걸린 사건이 신문

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재벌이 돈이 없어서 보석을 훔쳤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던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발동해서 그런 수치를 낳은 것입니다.

그럼요, 습관은 이성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빠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무의식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버릇을 고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혁명적인 정신을 가지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혁명적인 정신이 됩니까?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정신입니다. 곧 손이 실족하면 잘라버리고,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굳어진 습관을 잘라내기 어렵습니다. 자기

와의 싸움이지요. 저는 늘 나와 싸웠습니다.

다. 한 사람이 모이든 열 사람이 모이든 최선을 다해 설교하리라,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뽕치지 않으리라, 조급하지 않으리라... 늘 나와 싸웠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의 습관을 버리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

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의식적으로 반복하다보니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원동력입니다. 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가정, 사회와 국가를, 세계를 다스리겠습니까? 수신제가(修身齊家)해야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것이지만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물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작은 습관이지만 굉장한 것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웃는 것입니다. 저는 스펙 중 제1의 스펙은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웃는 얼굴이야말로 최고의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웃는 얼굴도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웃는 얼굴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항상 입 꼬리

가 올라간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니 만사형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남과 대화할 때는 상대의 눈을 쳐다보고 그 사람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습관도 들이세요. 오프라 윈프리는 잘 웃습니다. 웃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할 때 맞

위대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습관이 있다

장구를 잘 칩니다. 그 습관 덕에 그녀는 영화배우로부터 악물중독자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충격고백을 이끌어내어 ‘오프라 윈프리 쇼’를 세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 그녀를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흑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예절을 몸에 익히고, 아름다운 말투를 연습해서 습관화하세요. 어느 회사에서 면접자들에게 급히 면접장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면접자들은 급한 마음에 신발을 벗고 면접장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심사는 벗어놓은 신발로 결정되었습니다.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자들은 탈락, 급한 중에도 가지런히 신발을 벗어놓은 자들이 합격했습니다. 작은 습관으로 희비가 엇갈린 것입니다.

제가 꼭 권하고 싶은 습관은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습관화하셨는데(눅22:39~41), 우리야 일러 무엇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부터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형통했던 것은 기도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단6:10).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는 기도를 습관화하라는 말씀이며, 더불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요5:39)의 말씀은 성경 읽기를 습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습관, 매일 성경을 읽는 작은 습관이 당신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나쁜 습관을 자르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 당신의 인생이 명품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습관은 습성을 낳고 습성이 운명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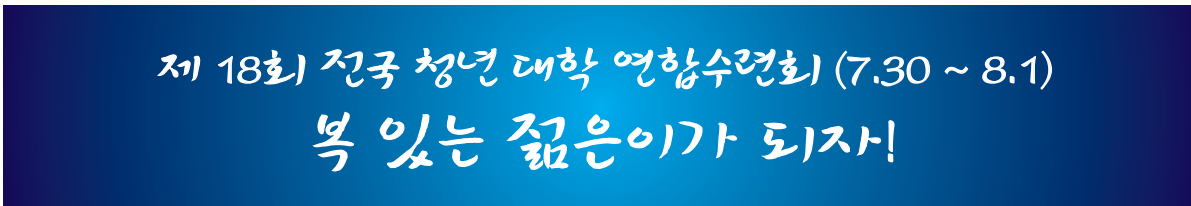
든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져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작은 약속도 잘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된 자가 큰 약속도 잘 지킵니다. 링컨 대통령이 마차를 타고 켄터키 주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육군대령이 링컨에게 열음을 탄 위스키를 권했습니다. 링컨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잠시 후 대령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링컨에게 권했습니다. 링컨은 대령에게 거듭 사양의 뜻을 전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약속을 했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술과 담배를 거절하는 이유요.” 링컨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품이었습니다. 부모와의 약속도 지키지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교단소식::

제18회 청년 대학 연합수련회를 마치며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장성예루살렘기도원에서 제18회 청년대학 연합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했으며, 직장인들과 군인들은 귀중한 여름휴가를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사용하였다. 4월부터 이어진 기도원 개보수 공사 덕분에 더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복 있는 젊은이가 되자!’는 주제로 시작한 수련회는 이월드 전도사의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첫날 저녁집회 강사로 서신 총회장 목사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세상과 직결되는 지혜인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성공과 실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것은 습관이다. 습관이 너를 성공자로 만들 수도 있고 실패자로 만들 수도 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가 큰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된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라.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 있거든 혁명적인 정신을 가지며 결단하고 고쳐라.” 둘째 날 오전집회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성령세례를 주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강사로 서신 이시대 목사님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 성령의 필요성과 성령 받는 방법을 말씀을 토대로 알려주셨으며, 성령을 받은 청년들에게는 성령이 도모하는 일을 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마음 문이 열린 청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벽찬 감동의 시간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미션 서바이벌을 통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그밖에도 침례식과 경배와 찬양, 마가의 다락방 등,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 번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저녁집회에 다시 강사로 서신 총회장 목사님은 땀을 흘리시며 전심전력을 다해 젊은이들의 심령에 메시지를 던지셨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롭게 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존재로만 들어졌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며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왜 두려움이 오는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다. 수업을 배우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배워야 하는 것처럼 현장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성공하기 원한다면 모방해야 한다. 성경 속 롤 모델을 설정하고 그를 닮고자 노력하고 기도

해라. 롯은 과부에서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었고, 불임이었던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으며, 병으로 죽는다고 했던 히스기야가 생명연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너를 향해 달려올 것이다. 기도하는 습관, 반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결단하며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어라.”

이번 수련회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변화가 빠른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록 수련회는 끝이 났지만 진정한 삶의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젊은이들이 되길 바란다.

박선인

sunin91@naver.com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금쪽같은 내 시간



김지현 집사 부부와 함께

1992년 6월 7일 ‘메인스타디움 집회!’ 하나님의 계획이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내려졌습니다. 제 나이 지금은 40세, 메인스타디움 집회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집회는 배설되었고, 목사님께서서는 10만 명을 목표로 경기장을 채워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오로지 경기장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45인승 대형버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선후배에게 집회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전할 때, 놀랍게도 친구들과 선후배들은 한명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 가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집회 당일까지 약속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모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집회 당일, 학교 앞 큰길에 45인승

대형버스를 대기시켜놓고 사람들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약속한 사람들이 모두 와주었고, 기도한대로 대형버스를 꽉 채우고 경기장에 도착하여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에 바닥까지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어 꽉 찼을 때, 마음은 뜨거워졌고 기쁨과 감사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회는 성령의 대역사 속에 진행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만 대형버스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고등부 친구들은 버스 한 대 이상을 채워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9월 8일 시청 앞 광장 ‘평화통일 기도성회’와 10월 3일 ‘월드컵경기장 집회’를 계획하시고,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메인스타디움 집회 때를 생각하며 걱정보다는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스 한 대를 결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인 딸에게 같이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딸들이 버스 한 대를 어떻게 채우느냐며 걱정하고 반박하였습

니다. 그래서 저는 1992년 메인스타디움 집회 당시 엄마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혼자서 버스 한 대를 채운 이야기를 해주며 할 수 있고, 하면 된다고 심어 주었더니 두 딸은 모두 같이 해 보겠다고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과 같이 해보려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동참하겠다는 생각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 도구일 뿐,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는 10만 명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해보았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매 집회마다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경기장을 채웠고, 집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동참하여 9월 8일 ‘평화통일 기도성회’와 10월 3일 ‘월드컵경기장 집회’에 큰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천예수중심교회

김지현 집사

로,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더욱 설레는 부흥(Revival)의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 댄 동산과도 같은 아름다운 성산에서 우리와 함께 거닐며 은혜의 진수성찬을 손수 차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십시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시편84:4).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학생이 한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오늘 당신의 계좌로 1,440불이 입금되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도 역시 같은 전화를 받았지만 끊어버렸답니다. 셋째 날에도 “오늘도 당신 계좌로 1,440불을 입금 하겠으니 꼭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같은 전화를 3번씩 받고 보니 장난은 아닌 거 같아 은행에 조회를 해본 결과, 진짜로 1,440불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조금만 찾아 썼는데, 넷째 날이 되자 또다시 전화는 걸려왔습니다. “어제는 조금만 썼는데 오늘은 유용하게 잘 쓰시길 기대하며 1,440불을 입금하겠습니다.” 그래서 1,440불을 다 찾아서 마구잡이로 써버렸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에 같은 전화가 와서는 “선생께서는 1,440불을 책임 있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입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입금하신 분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바로 그 학생의 재벌 아버지였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매일 1,440불씩 입금해 준 이유를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도 하루 24시간, 1,440분을 너에게 매일 입금해 주신단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아들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시간의 주인도 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 1,440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을 황금처럼 챙기세요. “Time is Gold!”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특별 기고::

청소년에게 보내는 메시지



Beloved my sons and daughters,
This is Pastor SiDae Lee.
I was very pleased with all of you at the summer camp.
I was very surprised that you were concentrated at service.
I saw you were listening very carefully to Rev. C. S. Lee's sermon.

Now, I have lots of expectations. I want you to become a very important person (VIP) in the world.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you? You can do it. I know it.
I am expecting you to become a person who has ability and who can influence the world.
Do your very best! And pray to our God. Then God will help you.
Beloved my sons and Daughters!
Do your very best! Then you will be succeed in the end. I will pray for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이시대 목사란다.
수련회에 너희와 함께 해서 매우 기뻐한다.
너희가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
이초석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봤지.
너희에게 거는 기대가 커.
나는 너희가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VIP)이 되길 바란다.
그 사람도 그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는 안 되겠니?
너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말고.
나는 너희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고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이라고 기대한다.
최선을 다하거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아!
최선을 다하거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와 함께하기를!